

4월

성령의 열매1 & 작은 한경직 살기
본문묵상-창세기



초등/소년부용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초등/소년부

초등부

소년부

약속

1.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2.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3.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4.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5.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초등/소년부 교육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God's Time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FUN FUN
PLAY

FUN FUN PLAY
친구들이 재미있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교육 내용	04
첫째 주	
어린이 QT God's Time	06
둘째 주	
어린이 QT God's Time	16
English Bible Study	24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30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31
어린이 QT God's Time	32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42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43
어린이 QT God's Time	44
편편 플레이	
점잇기	54
색칠하기	55
워드큐티스티커	57
활동	58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 고린도후서 2장 15절 -





4월 첫째주
2020년 4월 5일~11일



GOD'S TIME 1

첫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창세기 9:1-10:32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2.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3.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4.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5.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6.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생육하다: 나서 자라다

편만하다: 널리 가득차다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절)

“하고 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2.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셨나요? (6절)

“...당할 것이다.”

with
생각

대홍수가 일어난 후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갔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이 홍수로 파괴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에게 두 번이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라고 축복하셨어요. 이 축복의 내용은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와 같아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처음 창조했을 때처럼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고난을 겪어요. 하지만 매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실 축복을 기다리며 인내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을 인내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11:1-32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1.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2.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3.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4.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흠어지지 않게 하자."
5.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8.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흠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9.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흠으셨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사람들은 왜 높은 탑을 세우기 시작했나요? (4절)

그들의 알리고 온 땅 위에
 않게 하기 위해.

2.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나요? (7절)

그들이 하는 뒤섞으셨다.

with
생각

사람들은 대홍수 사건을 겪은 후에 다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지었어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흠어지지 않고 푹푹 멍쳐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모두 다르게 만드셨어요. 서로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자, 자연히 탑을 쌓는 일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 우리가 나라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with
결심

사람들은 모두가 인정받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어요. 때로는 이 욕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세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12:1-20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1.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래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소.
12.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13.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14. 아브람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람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름다운 여인임을 알았다.
15.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러 들어갔다.
16.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람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람은 양 떼와 소 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17.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18.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19.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네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네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20.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람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부지하다 : 유지해 나가다



with
관찰

1. 아브람은 사래의 아름다움으로 인해 남편인 자신이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어떤 거짓말을 했나요? (13절)

사래가 라고 했다.

2.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17절)

바로와바로 집의 을 내리셨다.

with
생각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자신이 익숙했던 곳을 떠나 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났어요.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새로운 땅으로 가던 중 이집트에 도달한 아브람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브람의 아내인 사래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녀를 탐내어 아브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람은 사래가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집트의 왕 바로는 사래가 아브람의 누이인줄 알고 그녀를 자신의 궁전으로 데리고 갔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래로 인해 바로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어요. 결국 사래는 아브람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with
결심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도 순간적인 두려움 앞에 인간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을 늘 보호하고 계셨지요. 우리도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 피를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눈앞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GOD'S TIME 4 첫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13:1-18 “하나님의 시선”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아브람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겅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2. 아브람은 짐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3. 그는 네겅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 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 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4. 그 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5.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 떼와 소 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6.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7. 아브람의 짐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짐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 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8.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나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9.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10.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넘쳐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11.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 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13.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아브람은 베델 부근에 이르러 무엇을 하였나요? (4절)

“ 이름을 부르며 드렸다.”

2. 롯은 어떤 땅을 선택했나요? (11절)

의 온 들판.

with
생각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은 각자의 소유가 너무 많아진 나머지 따로 살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들은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들이어서 가축에게 먹일 물이 매우 중요했는데 서로의 목자들이 물을 차지하려고 다투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았을 때는 사이 좋게 지냈던 아브람과 롯도 소유가 많아지자 싸우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람은 가까이 롯에게 먼저 머무를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했어요. 롯은 자신이 눈으로 보기에 물이 풍부하고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지만 그 곳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with
결심

아브람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을 때 롯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땅은 곧 멸망할 땅이었지요.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겠다고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 고린도후서 2장 15절 -





4월 둘째주
2020년 4월 12일~18일



GOD'S TIME 1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14:1-24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람을 맞아서, 사웨 별판 곧 왕의 별판으로 나왔다.
18. 그 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19. 그는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재**,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20. 아브람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브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천지의 주재 :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처리하는 분



with
관찰

1. 멜기세덱은 어디의 왕이었나요? (18절)

왕

2. 성경은 멜기세덱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18절)

“... 그는 가장 높으신 의 이다”

with
생각

아브람은 조카인 롯의 재산을 빼앗고 납치한 왕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모든 재물을 되찾고 조카 롯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구한 아브람이 귀환할 때 살렘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람 앞으로 나와 아브람을 축복했지요. 이 멜기세덱을 성경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이었지요.

with
결심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 멜기세덱이었지만,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왕이었어요. 그는 아브람을 축복하고 아브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지요. 우리도 멜기세덱처럼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따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GOD'S TIME 2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15:1-21 “믿음을 의로 여기심”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2. 아브람이 여쭙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뿐입니다."
3.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4.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5. 주님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 질 것이다."
6.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서는 아브람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7.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상속 : 뒤를 이음

상속자 : 재산이나 기타
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

with
관찰

1. 하나님은 아브람의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5절)

“너의 자손이 저 처럼 많아질 것이다.”

2. 하나님은 아브람의 무엇을 보고 그의 의로 여기셨나요? (6절)

① 외모 ② 믿음 ③ 사랑 ④ 재산

with
생각

아브람에게는 재산을 상속받을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는 상속자가 아니며 아브람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아브람의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 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브람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with
결심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자손들이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재산을 이어받을 아들 하나 없던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지요. 우리도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16:1-16 “브엘라해로이”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7.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8. 천사가 물었다. "사래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나?"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래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9.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10.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11.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12.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13.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뵈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14.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브엘라해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주님의 천사는 도망쳐 나온 종 하갈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9절)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하면서 살라라.”

2. 하갈은 주님의 천사를 만난 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했나요? (13절)

“ 는 하나님”

with
생각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종이었던 하갈은 아브람의 자식을 임신한 것을 알고서 사래를 꺾보았어요. 사래는 그런 하갈을 괴롭혔고 하갈은 도망쳐 사막에 있는 한 샘에 도착했지요.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는 돌아가서 사래에게 복종하면서 살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고 말했어요. 하갈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자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샘의 이름도 브엘라해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펴보시는 분의 샘)라고 지었지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그 당시 하갈만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살펴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둘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17:1-27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아브람의 나이 아흔아홉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 없이 살아라.
2.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3.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4.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5.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생략)
15.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래를 이제 사래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17.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백 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아흔 살이나 되는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18.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19.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번성 : 세력을 확장하여 한창 성함

언약 : 말로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



with
관찰

1. 아브람이 몇 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나요? (1절)

“... 나이가 이 되었을 때에...”

2.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라 하셨나요? (19절)

with
생각

아브람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주셨지요. 그리고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워, 그냥 현재 있는 아들인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으면서 살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일년 뒤 이삭이 태어났지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75세 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고, 86세 때 이스마엘을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질 것을 끝까지 믿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_____

ENGLISH BIBLE STUDY



마태복음 26장 47-54절 (새번역성경) / Matthew 26:47-54 (NIRV)

Humility—Putting others first by giving up what you think you deserve

겸손-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남들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

47.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48.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49.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50.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 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51. 그 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52. 그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53.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 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54.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47. While Jesus was still speaking, Judas arrived. He was one of the 12 disciples. A large crowd was with him. They were carrying swords and clubs. The chief priests and the elders of the people had sent them.
48. Judas, who was going to hand Jesus over, had arranged a signal with them. "The one I kiss is the man," he said. "Arrest him."
49. So Judas went to Jesus at once. He said, "Greetings, Rabbi!" And he kissed him.
50. Jesus replied, "Friend, do what you came to do." Then the men stepped forward. They grabbed Jesus and arrested him.
51. At that moment, one of Jesus' companions reached for his sword. He pulled it out and struck the slave of the high priest with it. He cut off the slave's ear.
52. "Put your sword back in its place," Jesus said to him. "All who use the sword will die by the sword.
53. Do you think I can't ask my Father for help? He would send an army of more than 70,000 angels right away.
54. But then how would the Scriptures come true? They say it must happen in this way."

Vocabulary

Sword- 칼

Scripture- 말씀

Come true- 이루어지다

ENGLISH BIBLE STUDY



Observation

Write the missing letters.

52 “Put your s_ _ _ _ back in its place,” Jesus said to him. “All who use the sword will die by the sword.

54 But then how would the S_ _ _ _ _ _ _ _ c_ _ _ t_ _ _? They say it must happen in this way.”

Interpretation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는 예수님께 거짓 인사를 하며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사람들에게 그를 넘겨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배반을 당하시면서도 괴로움을 참으셨어요. 그리고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며 맞이하셨어요. 그러나 곧 예수님을 잡으러 온 관리들과 병정들에게 체포되시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언제나 열정이 있는 제자였어요. 그는 이 상황에 분노하며 칼을 뽑아 들었지요. 그리고는 대제사장 종의 귀를 내리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칼을 거두라고 명령하셨어요. “칼을 쓰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며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셨어요.

Application

Jesus was unbelievably calm even when His life was in danger. His closest friend betrayed Him, but he did not shout at him or get angry at him. When people came to arrest Him, He let them do what they intended to do. In our lives, we encounter situations that make us angry and make us feel humiliated and burst into tears. But even at such times, we need to learn how to give up our right. We can fight and shout to defend ourselves, but Jesus shows us otherwise. We have to follow His example.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하셨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의 배신에도 그는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를 체포하러 왔을 때에도 그들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를 화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울게 만드는 일을 겪어요.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다투고 화를 내며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의 모습을 따라야 해요.

Let's memorize

Let's memorize Matthew 26:52, NIRV
마태복음 26장 52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Put your sword back in its place,” Jesus said to him. “All who use the sword will die by the sword.”

- Matthew 26:52, NIRV -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 고린도후서 2장 15절 -





4월 셋째주
2020년 4월 19일~25일



Memory Time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요!

셋째주

- ♥ 주제 : 성령의 열매 1 & 작은 한경직 살기
- ♥ 암송구절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 ♥ 오늘의 주제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요! ▷고린도후서 2:14-16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될게요.

- 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14절)
- ② 바울은 믿는 우리가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15절)
- ③ ‘이 사람(열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냄새가 된다고 하나요? (16절)
- ④ ‘저 사람(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냄새가 된다고 하나요? (16절)
- 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 우리가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모든 것에는 향기, 혹은 냄새가 있어요. 그것들이 좋은 향을 내기도 하고, 좋지 않은 악취를 내기도 하지요. 만약 우리가 빈병에 참기름을 넣으면 그 병에서 참기름 냄새가 나고, 간장을 넣으면 간장 냄새가 나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냄새가 나지요.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로요. 그 사람 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한 냄새가 나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냄새가 나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진한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사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바로 영락교회 초대 목사이신 한경직 목사님이예요.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과 같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날마다 헌신하셨어요. 특별히 목사님은 전도에 힘쓰실 뿐 아니라 교육과 봉사에도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셨지요. 이를 통해 믿는 이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떤 향기를 풍기며 살고 있나요?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사방에 널리 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토론하기

- Q1.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기 위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 이상 꼭 생각해 보아요.

Pray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GOD'S TIME 1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18:1-33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택의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10. 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 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11.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12.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13. 그 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14.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5.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어귀 : 입구

월경 :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자궁에서 피가 나는 생리현상

쇠진 : 점점 쇠퇴하여 바닥 이남

with
관찰

1. 사라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1-12절)

- ① 나이가 많은 노인 ② 월경이 그침
- ③ 기력이 다 쇠진함 ④ 즐거운 일이 많은 사람

2.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4절)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 때에 사라에게 이 있을 것이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라는 웃으면서 그것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사라는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하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사라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 :

GOD'S TIME 2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19:1-38 “하나님의 심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23.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쳤다.
24.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향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 부으셨다.
25. 주님께서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덮어 멸하셨다.
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27.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서 있던 그 곳에 이르러서,
28.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웅기 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29.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 주신 것이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웅기 가마: 질그릇 등을 굽거나 판매하는 곳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유흥과 불을 퍼부으신 지역은 어디인가요? (24절)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과
 에 유흥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 부으셨다.”

2.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무엇이 되었나요? (26절)

人 7 7 口

with
생각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보고만 계실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땅에 유흥과 불을 비같이 내리시고, 그 땅에서 난 것을 다 얹어 멸망시키셨어요. 하지만 롯은 집에 하나님의 천사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with
결심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해야 해요. 우리가 회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회개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회개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셋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20:1-18 “거짓말하는 아브라함”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네겟 지역으로 옮겨 가서,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잠시 머문 적이 있는데,
2.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 소개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
3. 그런데 그 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네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4. 아비멜렉은, 아직 그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않았으므로,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서 의로운 한 민족을 멸하시렵니까?"
5. 아브라함이 저에게, 이 여인은 자기 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여인도 아브라함을 오라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 일을 하였습니다."
6.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잘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켜서,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7.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다 죽을 줄 알아라."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아브라함이 그랄에 잠시 머물 때에 그랄 왕은 누구였나요? (2절)

○ 남 □ 리

2.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넣으세요. (7절)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with
생각

아브라함은 그랄 지방에 가서 잠시 머물렀어요. 이곳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with
결심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말을 하며 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셋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 . .

with
말씀

창세기 21:1-34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켜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2.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3.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 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4.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드레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5.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백 살이 었다.
6.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7.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지 않았는가!"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여드레: 여덟 날

분부:윗사람이 아랫람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내림

엄두: 감히 무엇을 하려는 마음을 먹음



with
관찰

1.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 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나요? (3절)

○ 人

2. 이삭이 태어난 지 여드레 만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무엇을 베풀었나요?(4절)

ㅎ ㄹ

with
생각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나 놀랐고 기뻐했어요.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신다고 해서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어요. 이삭이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이삭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새로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돼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with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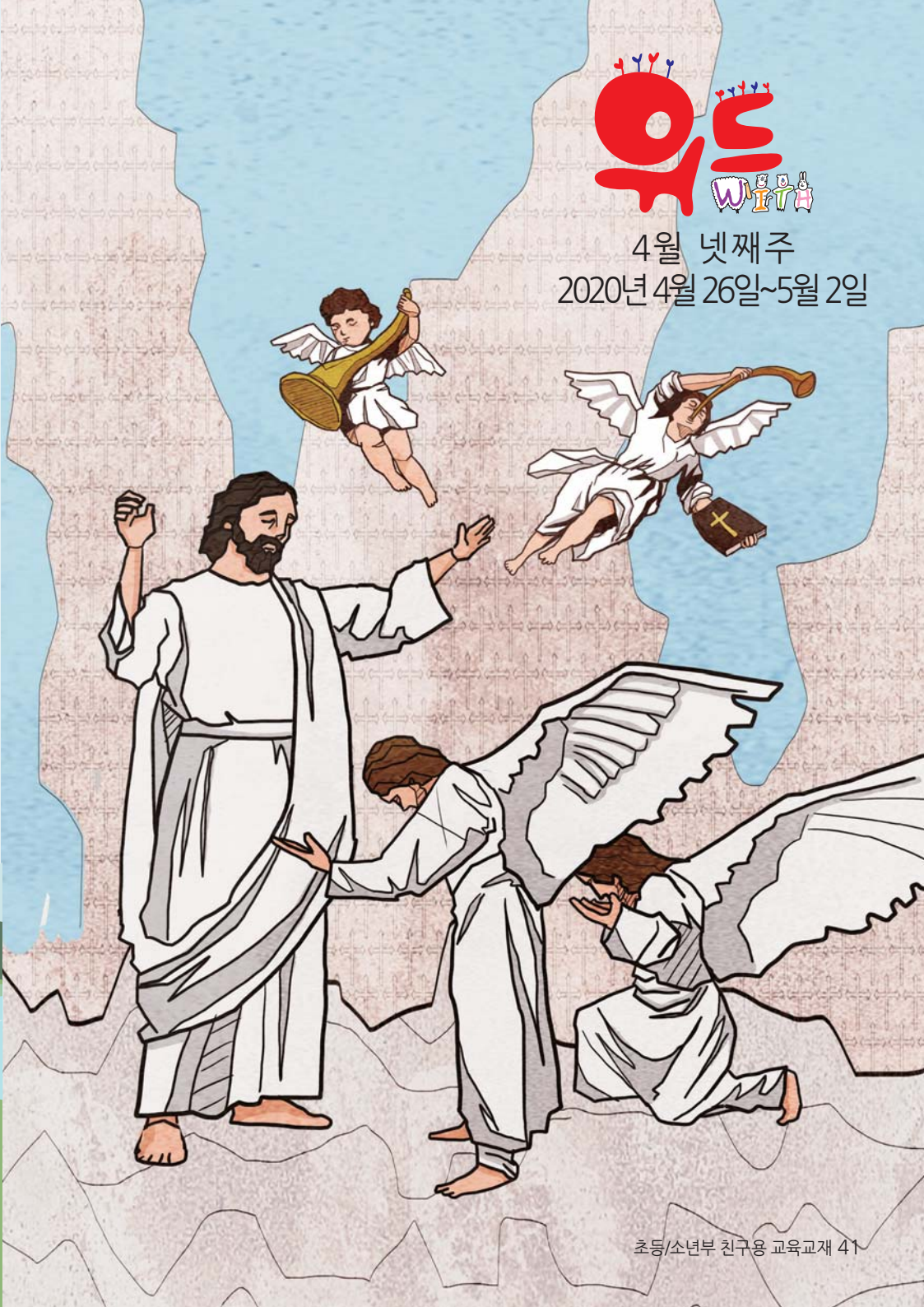
한줄 기도 :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 고린도후서 2장 15절 -





4월 넷째 주
2020년 4월 26일~5월 2일



Memory Time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넷째주

♥ 주제 : 성령의 열매 1 & 작은 한경직 살기

♥ 암송구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 마태복음 22장 39절

♥ 오늘의 주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 마태복음 22:34-40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① 누가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했나요? (35절)
- ②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37-39절)
- ③ 친구들의 삶에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친구들과 나누어 보세요.

★ 교육활동 - “작은 한경직 살기”

준비물 - 활동지(별지), 펜, 포스트잇, 4절지(우리 반 작은 한경직 살기)

- 1) 한경직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는지 그림을 함께 살펴보세요.
- 2) 한경직 목사님처럼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림과 글로 표현해보세요. ex) 한경직 목사님처럼 아픈 친구들을 돌보아주기
- 3) 서로 작성한 내용을 선생님과 반 친구들과 나누어보세요.
- 4) 한주동안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은 한경직 살기’를 실천할지 포스트잇에 1가지씩 적고, 우리 반 한경직 살기(4절지) 종이에 붙여주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넛째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시자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지 물어보았지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노력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해요.

이 계명을 잘 지키며 이웃에게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셨어요. 목사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헌신적으로 도우셨어요. 전쟁 중에 고아들을 위해 월드비전을 창립하여 전세계 구호활동에 앞장섰으며, 고아원 양로원 등을 세워 어려운 이웃을 돌보셨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큰 기쁨을 누리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해주어야 해요.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시는 한경직 목사님처럼 친구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토론하기

Q1.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Pray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GOD'S TIME 1

넷째주

날짜: 2020. . .

부모님 확인:



with
말씀

창세기 22:1-24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이런 일이 있는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3.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엮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곳으로 길을 떠났다.
(생략)
9.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10.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11.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12.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안장: 말, 나귀 따위의 등에 얹어서 사람이 타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도구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2절)

“... 그를 로 바쳐라”

2. 이삭을 잡으려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12절)

“...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with
생각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그는 이렇게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명령에 불만 하나 갖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 모리아 땅으로 향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에 묶고 아들을 바치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제일 사랑하는 것으로 시험하셨지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소중한 것이 있나요? 혹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2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23:1-20 “하나님의 계획”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사라는 백 년 하고도 스물일곱 해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헛수이다.
2. 그는 가나안 땅 기럃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생략)
7.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8.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 곳עדא 묻을 수 있게 해주려면, 나의 청을 들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그가 자기의 발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14.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15. "저의 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사백 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 하시기 바랍니다."
16.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발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운 사백 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주선: 일이 잘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씀

안장: 편안하게 장사 지냄

통용: 일반적으로 두루 씀

with
관찰

1. 사라는 어디에서 눈을 감았나요? (2절)

“그는 땅 기랏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2. 사라를 안장할 땅을 거저 준다는 에브론의 말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나요?
(15-16절)

“아브라함은 ... 헛 사람들이 듣는 데서,

... 은 사백 세겔을 달아서 에게 주었다.”

with
생각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 사라가 죽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곳, 가나안 땅인 헤브론에 안장하기를 원했어요. 그 땅의 주인인 에브론은 땅을 거저 준다고 하였지만 아브라함은 땅의 값을 모두 지불하고 사라를 그곳에 안장하였어요.

with
결심

사라의 죽음은 아브라함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을 소유하는 시작점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며 나의 삶에 이루실 일들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3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with
 말씀

창세기 24:1-67 “하나님의 인도하심”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12.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13.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오면,
14.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 때에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겠습니다."
15. 기도를 마치 마치고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는 브두엘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제수뻘이 되는 사람이다.

(생략)

17.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 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세요."
18.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19.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아브라함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였나요? (12절)

“그는 하였다...”

2. 아브라함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대로 누가 똑같이 행동하였나요? (14, 18-19절)

리브가

with
생각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종에게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어요.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찾아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종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게 되었어요.

with
결심

배우자, 결혼할 상대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종은 중요한 일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자신이 가진 생각이나 외적인 부분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종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리브가를 찾을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도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로 먼저 나아갈 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모든 일에 있어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GOD'S TIME 4

넷째주

날짜 : 2020. . .

부모님 확인 : . .



with
말씀

창세기 25:1-18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그두라이다.
2.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과 욱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가 태어났다.
3. 욱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자손에게서 앗수르 사람과 르두시 사람과 르움미 사람이 갈라져 나왔다.
4.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데,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다.
5.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 주고,
(생략)
8.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9.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안장하였다.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헷 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10.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바로 그 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합장**되었다.
11.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 때에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Q. 단어사전

합장 : 남편과 아내를 한 무덤에 묻는 경우



with
관찰

1. 아브라함이 다시 맞이한 아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절)

가 드 리

2.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셨나요? (11절)

오 사

with
생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 하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많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복은 아브라함에서 끊어지지 않고, 아들 이삭에게까지 복을 주셨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 질 때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Morning Time

가족과 함께하는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찬양을 함께 들어요.
3. 찬양의 가사를 보며 함께 부른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찬양 <날 사랑하는 이>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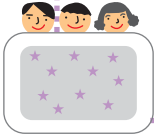
사랑하는 OO(아), 잘 잤니?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함께 들은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주고 계시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 내자. 우리 OO(이) 파이팅!!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또한 참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우리 OO(이)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주변에도 전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OO(이)와 함께 하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자리에 누워서, 친구에게 시를 읽어주세요.
4.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시 <봄 길>

-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 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OO아(야), 우리 OO(이)은/는 스스로 나의 가족,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게 어떤 길이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사랑의 길, 봄같이 따스하고 아름다운 길이 되어주면 어떨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 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 주셨던 예수님처럼 말이야.

사랑의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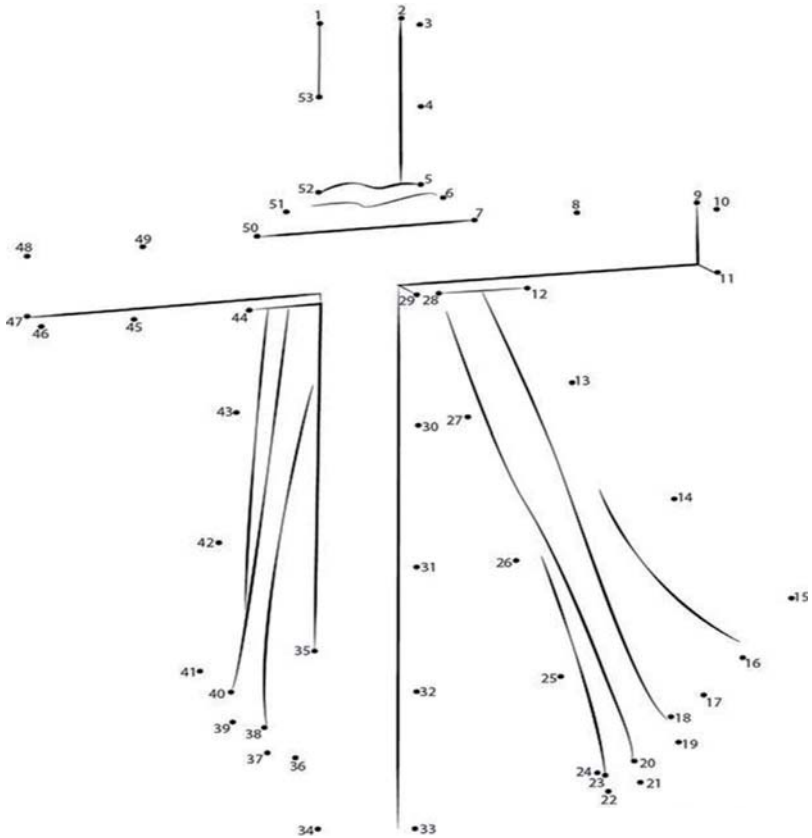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UN FUN PLAY

점 잇기

-십자가 숫자 점 잇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완성해 주세요. 숫자 순서대로 점을 이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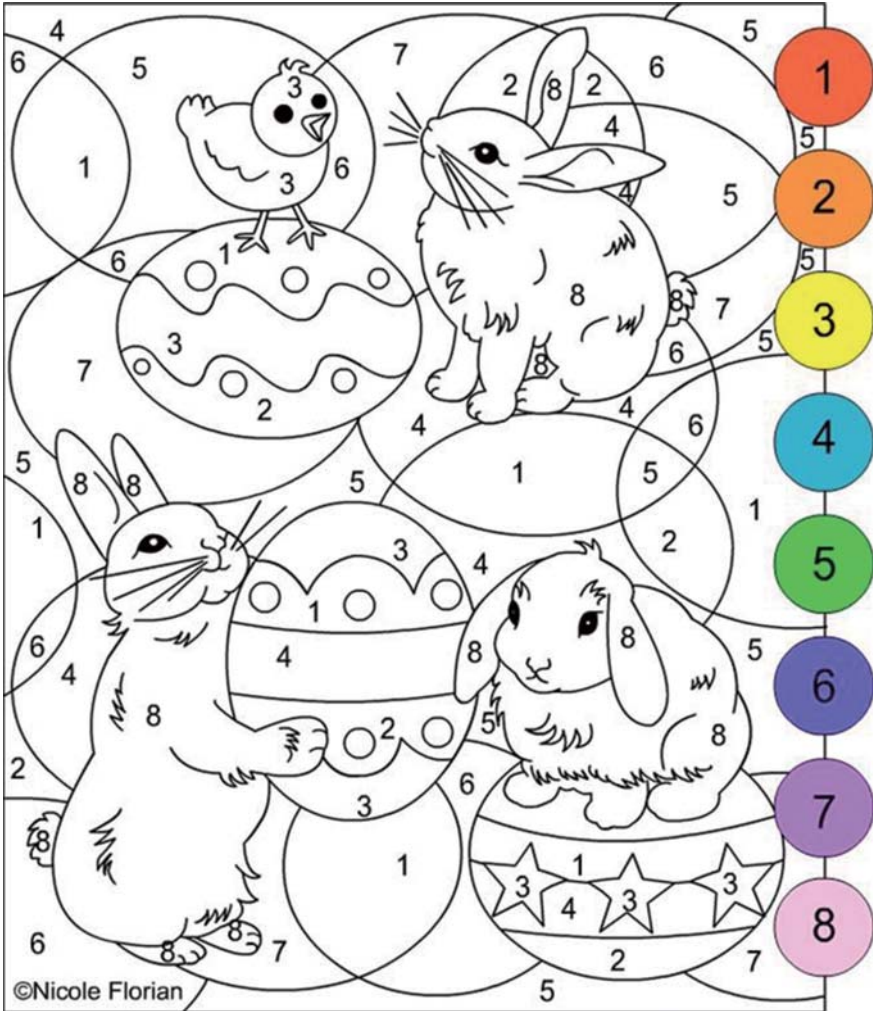


출처: <http://www.connectthedots101.com/worksheet/3861-Easter-Good-Friday-dot-to-dot>

색칠하기

- 부활절 달걀 색칠하기 -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른쪽에 동그라미 번호와 같은 색으로 부활절 달걀을 예쁘게 색칠해보세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Nicole Florian

출처: <https://www.pinterest.co.kr>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 고린도후서 2장 15절 -



4월 QT +

STICKER

부 학년 반

이름 :



GOD'S TIME	1	2	3	4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이웃사랑을 실천한 한경직 목사님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경직 목사님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한경직 목사님



배고픈 사람들에게 쌀과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한경직 목사님



고아들을 위해 월드비전을 창립하여 전세계 구호활동에 앞장서는 한경직 목사님



4월 넷째 주(4/26)

-작은 환경직 살기!

